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이 재 하**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지리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지역연구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세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세계체제론에 기초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그것이 세계화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제시하여 보았다.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역사지역)은 세계경제체제의 재생산적인 일반 메커니즘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또는 동인 이외에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지역성은 경제적 특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특성도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구분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적 경계와 함께 정치적 경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가단위지역도 중요한 연구대상 지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정·제한하였다.

主要語 : 세계화, 지역연구방법론,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 역사지역,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

1. 서론

우리는 최근에 세계화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현 정부의 세계화 대응 국가발전 전략이 암시하듯이 오늘날 세계는 과거와 달리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은 정치적으로 동서간의 냉전과 대립구도를 붕괴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명실공히 하나의 경제체제(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편입·통합되도록 하였다. 더욱이 UR협상의 타결로 새로운 무역질서(WTO)가 구축됨에 따라 세계무역시장도 장벽(국경)없는 하나의 세계 시장(global market-place)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세계의 공간

적 거리를 크게 축소시켜서 각 국가간 및 국가내 지역 또는 지방간에는 다방면에서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공통적인 경험을 보다 많이 공유하게 돼, 세계는 이른바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생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세계는 지리적으로는 국경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영역단위로서의 국가의 의미와 경계는 크게 약화되고, 그 대신에 국경을 초월한 세계전체의 기능적인 통합성 또는 의존성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이러한 세계의 변동현상을 세계화 또는 지구화

* 이 연구는 1995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globalization)라고 일컫고 있으며,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인문지리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에서도 세계적 또는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에서 사회현상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은 사회현상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세계의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려고 하는 지역지리학도 현실 세계의 시대적인 커다란 변화의 물결 즉,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 시대에서는 세계적 관점에서 세계의 각 지역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지역연구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제2장에서는 세계화의 개념과 지리학에서 개발된 여러 지역연구방법론을 검토해 보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연구방법론 중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지역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이론과 그것의 경험적 연구사례를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 대해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연구방법론으로서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제시하며, 제5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대안적인 지역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우리 학계가 관심을 두어야 할 지역연구와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세계화의 개념과 지리학적 지역연구방법론의 검토

1) 세계화의 개념

세계화 현상은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일천하지만 그것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접근도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아직 이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정의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세계화는 최근의 세계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서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이어서 나타난 보다 발전된 현상이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경제활동이 국경을 가로질러 지리적 확산 또는 교류가 증대되는 것으로서(Dicken, 1992, 1),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국제적으로 형성돼 온 장기간의 무역패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세기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던 국제화가 본격화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세계경제활동의 생산과정은 국가경제 또는 국가경제의 부분내에서 기본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Dicken, 1992, 3), 경제활동에서 전세계적인 세계경제 또는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성격은 크게 변모되기 시작한다(Dicken, 1992, 4). 생산과정에서 국가의 경계가 더이상 차단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진행된 노동의 광범위한 공간분업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더불어 생산과정의 지리적 이전과 확산을 급격히 확대시켜 최종상품의 생산과정은 지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자동차와 같이 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생산품은 실제로는 많은 상이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어, 그 생산과정이 지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지구적 규모의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상품의 시장도 자국의 시장보다는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유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체계에 직접 연관된 금융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경제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적 또는 세계적 상호연관성으로 복잡하게 상호 얽혀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경제활동은 국제화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돼 국제적으로 분산된 경제활동 간에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고 일컫는가 하면(Dicken, 1992, 1), 어떤 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러한 통합

화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세계로 되었다는 것을 세계화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Taylor, 1994).

세계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기든스(A. Giddens)가 세계화를 "세계사회(world society)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 용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Giddens, 1992, 520; 김경동, 1994, 59), 세계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각 사회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단일 사회체제로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 사회에서의 삶은 일상적 활동을 조건짓는 사회적 맥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의 다른 사회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사건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만큼(Giddens, 1992, 485; 박길성, 1994, 80) 사회적 관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사회에서의 사회관계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진행된 교통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이른바 공간조정적 기술(space-adjusting technologies)의 혁신과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공간과 시간의 축소 또는 붕괴현상(시공 수렴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사회간의 교류 및 의사소통의 채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활발해졌기 때문이다(Janelle, 1991).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 측면의 세계화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시간과 공간(거리)의 재구조화 또는 재질서화로 이해할 수도 있다(김경동, 1994, 59). 그리고 세계화는 세계의 경제 및 사회적 측면 이외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Featherstone, 1990).

이상에서 볼 때, 세계화는 최근의 세계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활동에서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에서의 세계화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역연구 방법론을 논의하기로 한다.

2) 지리학적 지역연구방법론의 검토

18세기 후반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과학적인 근

대학문으로서의 지리학은 학자와 시대에 따라 그것의 연구주제와 목적 및 방법론을 조금씩 달리하며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지리학 성립 이후 1950년대까지의 기간에 걸쳐 지리학이 변함없이 추구해 온 주된 과제는 Hartshorne(193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표상의 지역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 즉 지역지리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지역지리학은 지표면상의 특정한 지역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생태학적 접근, 경관론적 접근, 지역차이론적 접근 등과 같은 주요한 방법론적 흐름을 형성하며 연구되어 왔다.

생태학적 지역연구방법론은 지역(region)의 특성 또는 개성을 지역내의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으로서, 근대지리학을 발달시킨 독일의 Humboldt, Ritter, Richthofen, Ratzel 등과 같은 학자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론을 발전시켜 지역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Hettner와 프랑스의 Vidal de la Blache라고 볼 수 있다. 1905년에 지리학을 지역과학 또는 지지학(chorology)으로 정의한 바 있는 Hettner는 1927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지리학의 관심사는 장소에 따라 상이한 지표면의 현상에 있으며, 그것의 목적은 상호관련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륙에서 지방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지구표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고 하였다(Elkins, 1989, 23). 그의 연구방법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과의 인과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환경결정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Elkins, 1989, 23~24). 그래서 그는 지역연구에서 한 지역의 자연이 그 지역의 인간생활을 규제한다는 전제에서 자연현상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과의 인과관계에서 인문현상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한편 Vidal은 가능론(possibilism)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영향관계에서 전체론적인 기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 역시 생태학적인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Archer, 1993, 499~500). 그는 1896년 이후 Lamarck의 유기체 개념을 받아들여서 지역(pays)을 사회적 유기체(social organism)로 보고

(Archer, 1993, 502~503), 한 지역(동질지역)의 개성(personality)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를 생활양식(genre de vie), 자연(nature), 인구집단(population), 문명(civilization), 상호작용 또는 순환(circulation), 생물자연환경(millieu), 그리고 경관(paysage)등의 관련된 개념요소로 설명하고 있다(Archer, 1993). 이와 같은 생태학적 연구방법론은 2차대전 이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지리학자들의 지역연구에까지 크게 영향을 준 바 있다.

경관론적 지역연구방법론은 독일의 Schlüter와 Lautensach 및 미국의 Sauer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Schlüter는 1906년에 Hettner를 비판하고, 지리학은 감각을 통해서 지각될 수 있는 지구 표면상의 사물의 총체를 의미하는 경관을 연구하는 경관과학(landschaftskunde)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리학의 주제 또는 대상은 지역 또는 영역(raum)이 아니라 동일한 가시적 또는 형태적인 경관이 되어야 하며, 경관을 분석하는 데에 역사지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원초적 천연경관(urlandschaft)이 인간의 문화에 의해 창조된 문화경관(kulturlandschaft)으로의 변환과정을 추적·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고와 방법을 중부유럽연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Martin and James, 1993, 176~178). 그의 영향으로 2차세계대전 전에 독일의 다수의 지리학자들은 지역(경관상의 동질지역)의 경관연구에 몰두하였다. 그 가운데 Lautensach는 지표상에서의 모든 경관 또는 지역의 형태변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지리적 형태변이론을 주장하고 포르투갈(1932), 한국(1945), 이베리아반도(1964) 등의 연구에 적용하였다(김종규, 1993). 그리고 Sauer도 독일의 Hettner와 Schlüter의 영향을 받아 지리학(chorology)을 지리학으로 간주하고, 『경관의 형태학』(1925)을 통해서 문화경관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문화경관론은 한 지역의 자연경관이 오늘날의 가시적 형태를 구성하는 문화경관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그 지역 내에서의 인간활동 즉, 문화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으로서(이정만, 1993, 75~79; Martin and James, 1993, 345~347) 그는 이러한 문화경관

론을 미국의 여러 지역연구에 적용하였다.

지역차이론적 지역연구방법론은 Hettner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Hartshorne에 의해 형성되었다. Hartshorne은 명저 「지리학의 본질」(1939)에서 생태학적 및 경관론적 지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은 성장·발전하는 유기적 실체가 아니라, 연구자(지리학자)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정신적 구성체(mental constructions)로서 단순히 지표면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Hartshorne, 1939, 250~284). 그는 또 지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의 지역적 차이를 연구하는 것(Hartshorne, 1939, 242, 468)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즉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Hartshorne, 1939, 285~361). 이에 영향을 받은 Whittlesey는 지역구분방법과 지역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역을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수직적 범주화에 의해 지역을 단일주제지역(single feature region), 복수주제지역(multiple feature region), 그리고 전체지역(total region)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수평적 범주화에 의해 동질지역(uniform or homogeneous region)과 결절지역(nodal region)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Whittlesey, 1954).

이와 같은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지리학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아 논리실증주의적인 공간과학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뒷서리를 맞게 된다. 이것의 계기는 미국 지리학계의 거두였던 Hartshorne의 지역차이론적 지리학이 다른 사회과학에의 경향에 매료된 신진학자들에 의해 1950년대 초에 비판을 받게 되면서이다. 특히 Schaefer는 Hartshorne의 지리학을 다른 사회과학의 방법론(법칙추구적인 논리실증주의 방법론)과 유리된 예외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논리실증주의적인 지리학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Schaefer, 1953).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방법론에서도 같은 해에 Ackerman은 Hartshorne을 비판하고 Bertalanffy(1951)의 일반체계론(general systems theory)이 도입되고 있는 다른 사회과학

에서처럼 체계(system)접근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Nir, 1990, 26~27, 49).

Ackerman에 의해 주장된 체계론적 지역연구방법론은 1950년대 이후의 지리학의 방법론적 흐름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재평가 되고 있다. Ackerman은 1953년에 지역을 인간의 지구표면 점유로부터 생긴 하나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정의하고, 지역지리학의 초점은 시간을 통해서 한 지역을 형성시킨 사회적 및 자연적 힘(이러한 힘은 서로 서로에 대해 각각 반작용함)의 명백한 기술에 있다면서 지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또한 체계 접근방법을 지리학의 전체연구에 확대·적용하여서,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구표면상의 모든 인간과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광대한 상호작용체계(즉, 전세계 체계를 말함)의 이해'로 정의하고, 전세계의 인간-자연환경적 체계는 수 많은 하부체계(sub-system, 즉 지역)로 구성돼 있다면서 체계 접근방법에 의한 지리학 및 지역지리학 연구를 강조한다(Ackerman, 1963, 434~437). 이에 영향을 받은 Berry는 체계론적 지역분석 접근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Berry, 1964). 그는 일반체계론에 기초하여 지리학에서의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의 이분법적 지역분석방법을 통합하기 위해서, 계량적 분석방법인 수학의 행렬 개념을 원용하여 행(column)에 다양한 크기의 지역을 그리고 열(row)에 계통지리학의 다양한 주제를 분석변수로 하는 지리적 행렬(geographic matrix)모델을 고안하고, 이것에 의해 향후 계통 및 지역지리학에서의 지역분석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근에 Nir도 Ackerman의 영향을 받아 1985년 이후 일련의 연구를 통해, 지역은 하나의 분리된 실체이자 동시에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더 큰 전체(wholes)의 일부분으로서의 하나의 전체(holon)로 인식하고,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발전시킨다. 그는 지역을 하나의 사회-환경적 체계로 보고, 체계적 지역(systematic region)의 연구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이스라엘의 Bet Shean지역의 연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Nir, 1990).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은 Ackerman과 Berry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비영어권에서는 지역지리학의 전통이 어느 정도 그 명맥이 유지되긴 했지만, 세계지리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어권에서는 지리학이 지표현상의 공간적 질서에 대한 보편적 원리추구에 매몰됨으로 인해 1970년대 말까지 사장되다시피 하였다. 1950년대 이후의 지리학은 실증주의 지리학과 이에 대한 보완과 비판으로 등장한 행태주의, 인본주의, 구조주의 등의 철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며 숨가쁘게 변증법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세계의 지리학계에서는 1970년대 말에 이런 공간분석적 현대지리학의 발전과 전도에 대한 한계와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지리학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논리실증주의적 공간분석적 인문지리학을 비판한 Gregory(1978)는 대안적 지리학으로서 수정된 지역지리학(revised regional geography)을 주장한다(Gregory, 1978). 그의 주장은 당시 풍미하던 구조주의적 지리학에 영향을 주어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공간과의 관련성 문제를 지방(locality) 또는 지역차원의 연구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에는 공간을 사회관계나 구조의 산물 또는 존재로 파악하는 맑시스트 구조주의 지리학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공간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지리철학인 실재주의(realism)의 등장과 거대이론을 거부하고 특수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지리학에서도 지역의 차이를 연구하는 지역지리학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현대사회이론과 접목된 다양한 지역연구방법도 나왔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일사사 또는 문제(social affairs)에서 공간이 가지는 내재적 중요성에 주목하는 사회이론적 지역연구방법론에는 구조화이론, 노동의 공간분업이론, 세계체계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이론적 지역연구방법론 또는 신지역지리학은 보편적인 사회적 변동의 프로세스(process)와 지역 또는 장소를 고유한 것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또는 지

방을 연구한다. 한편 최근에 Thrift는 탈-후기구조주의(post-poststructuralism)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이론적 신지역지리학에서의 지방연구가 사회구조쪽에 편倚(偏倚)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앞으로의 신지역지리학은 인간(인간행위)의 주체성을 보다 충분히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그의 일련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으나(Thrift, 1990; 1991; 1993), 아직 그의 시도는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화이론적 지역연구는 영국의 사회학자 Giddens의 구조화(structuration)이론(Giddens, 1984)에 기초하고 있다(Hauer, 1990; Johnston, Hauer and Hoekveld, 1990; 손명철 편역, 1994). 구조화이론은 근대 사회과학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와 인간행위와의 이분법적 관계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구조와 인간행위는 서로에게 독립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상호반영적 관련성이 있다는 구조의 이중성(duality)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Giddens는 사회적인 것과 공간(장소)적인 것을 통합·연계하여서 사회구조와 행위자 또는 인간행위간의 순환적 상호작용, 즉 구조화과정을 특정한 공간 곧 장소(locale)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구조는 일련의 규칙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사회체계(social systems)와 함께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인간의 일상적인 상례화(routinization)된 행위를 통해서 배태되고 또한 재생산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는 Hägerstrand의 시간지리학 모델(이재하, 1985, 402~408 참조)을 원용하여 특정한 공간(장소)과 시간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Giddens는 공간과 함께 시간도 일상행위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구조화이론은 사회현상을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에서 전개되는 구조화에 의해 분석·설명해 주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조화에 의해 장소 또는 그것의 특성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모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 유용한 지역연구이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구조화이론은 지역연구에 실제로 적용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 도시(Hamilton)에서의 정신병력 환자들의 특별구역화(ghettorization) 연구

(Dear and Moos, 1986)와 스웨덴 스캐인지방에서의 마을간의 장소 형성의 차이연구(Pred, 1985)가 있다.

노동의 공간분업론적 지역연구 접근은 Massey가 신고전 경제학에 기초한 개별기업 차원의 전통적 산업입지이론과 기업의 입지를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산물로 설명하는 맑스주의에 기초한 구조적(정치경제학적) 접근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중위수준(medium)이론으로 제시한 노동의 공간분업론(spatial divisions of labour)에서 비롯된다(Massey, 1979; 1984; 김덕현, 1993; 강현수, 1991; 변창흠, 1991). 그녀는 영국의 산업(대규모 다공장기업)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의 내적 생산조직변화 또는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조건의 지리적(공간적) 격차와 산업(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새로운 요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의 공간적 분업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산업(기업)도 기능에 따라 지리적으로 분리·입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순차적으로 새로운 노동의 공간적 분업을 일으키는 지리적 조건이 돼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지적으로 상이하게 투자되는 결과를 남기 때문에 장소 또는 지방의 차별화와 고유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노동의 공간분업론은 지방 또는 소지역 연구로 이어져 산업의 재구조화와 노동의 공간적 분업이 각 지역 또는 지방의 고유성 형성과 그것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려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가 국내외에서 시도되었다(손명철, 1995).

세계체제론적 지역연구방법론은 현대사회이론 중의 하나인 Wallerstein의 세계체제(world system)론에 기초한 Taylor의 신지역지리학을 말한다(Taylor, 1988; 1991a; 1991b). 세계체제론을 지역연구에 도입하거나 그것에 의한 경험적 연구는 여러 학자(Hoekveld, 1990; Terlouw, 1990; Thrift, 1990; Bradshaw, 1990)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Taylor의 방법론이 선구적이고, 또한 이론적으로도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이다. 세계체제론은 1900년 이후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기초한 하나의 세계시장속에 통합된 분업체계, 즉 세계경제(world-economy)라는 단일의 세계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세계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Wallerstein, 1974: 1979: 1980: 1988). Taylor는 세계체제론에 내재된 공간개념에 유의하여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지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이재하, 1993). 그 가운데 그의 신지역지리학은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지역이 세계체제의 산물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메커니즘(mechanism)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지역연구방법론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지역은 세계경제라는 세계체제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설명도 세계경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재하, 1993, 3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학은 꾸준히 다양한 지역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켜 왔다.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은 지역을 사회변동현상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지리적 의미와 존재로 파악하여 그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한 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세계경제체제내에서 기능하는 세계화시대에는 부적절한 지역연구방법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지역지리학적인 방법론은 다양한 현대의 사회이론에 의해 지역연구를 접근하고 있으나, 세계체제론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범세계적인 맥락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세계화현상은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진다(조명래, 1994, 37: 이수훈, 1993, 32). 따라서 범세계적 사회이론인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지역연구를 새롭게 시도한 Taylor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3.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이론과 경험

1) 기초이론

Taylor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Wallerstein의 세계체제(world-system)론과 그것에 내재된 공간개념에 기초하고 있다(이재하, 1993). Wallerstein은 종래까지의 근대 사회과학에서 사

회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해 왔던 국가 사회단위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인 하나의 사회체제, 즉 세계체제 속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으로 개별적인 국가사회를 벗어나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시장속에 통합된 분업체제, 즉 세계경제(world-economy)라는 단일의 세계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도 세계체제의 맥락적 현상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Wallerstein은 인류사회의 변동과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체계(historical system)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인류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호혜적 혈연(reciprocal-lineage) 생산양식에 기초한 소체계(mini-system)와 재분배적 공물(redistributive tributary)생산양식에 기초한 세계제국(world-empire) 역사체계를 거쳐 1450년 이후 유럽에서 성립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더욱더 확산·발전돼 20세기에는 세계가 완전히 하나의 세계경제라는 역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는 노동력의 통제양식과 생산품의 다양성 및 기술수준 등의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3단 구조(중심, 반주변, 주변)의 분업체계를 이루며 역사적으로 유지·변모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3 구조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생산과 교역관계를 성립·유지시켜 주는 한편, 각 구조간의 상호의존적인 분업이 부등가 교환에 의한 지배와 착취의 종속관계로 성립돼 있기 때문에 세계체제는 불균등 발전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Taylor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을 기초로 지리적 현상을 새롭게 설명하기 위해 세계경제체제에 내재된 공간패턴 개념(중심지대, 반주변지대, 주변지대)에 유의하여 지리학의 공간분석 틀을 재구성한다(Taylor, 1981: 1989: 이재하, 1993). 그는 세계체제(세계경제)의 수평적인 3단 지리적 분석규모로부터 수직적 3단 지리적 분석규모(세계경제-국가-지방)를 유도하여 이른바 세계체제론적

공간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3단 지리적 규모에서 각기 다른 사회적 프로세스(process)가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단지 한가지 프로세스(세계경제의 메커니즘)만이 3가지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재(reality)또는 현실세계에는 세계경제라는 단 하나의 체제만이 있고 이것의 영향을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여파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규모인 지방(locality)에서 가정과 직장을 통해 우리의 경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이와 같이 세계체제에 내재된 공간개념과 세계체제론적 공간분석 모델에 기초하여 주장되고 있다(Taylor, 1988; 1991a; 1991b).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지구표면의 일부분 공간으로서의 특정한 지역은 현실세계의 전지구적 지리적 규모에서 존재하고 작동하는 세계경제라는 세계체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세계경제의 맥락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은 세계경제 속에 통합된 비독립적인 구성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세계경제의 역사적 변동과정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의 개념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의 의미가 공간적 또는 지리적 의미로만 파악되고 정의된다. 지리학자는 그들의 의식세계에서 어떤 지리적 기준에 의해 지구표면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여 왔는데, 이 경우 구분돼 나타나는 지표면의 일부분 또는 일정한 범위의 땅덩어리를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념은 환경론(특히 자연환경 결정론)적 인식에 기초하여 현실세계에는 불가피하게 지역이 생성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은 자연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 말하는 지역(region)은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체제론의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 역사체계는 끊임없이 이행·발전하

는 것(소체계→세계제국→세계경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체계인 세계경제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체제내의 3단계구조 또는 공간구조도 정태적인 구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조에 편입된 구성요소, 즉 국가와 같은 지역은 구조간에 이동이 이루어짐으로, 역시 동태적인 개념이다. 요컨대 Wallerstein의 세계체제는 시간과 공간개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공간(TimeSpace) 개념이다(이수훈, 1993, 102~104).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개념도 당연히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Taylor, 1991a, 28). 다시 말해서 지역은 공간-시간 현상이어서 지도상에 공간적으로 표현되지만 시간을 통해서도 움직이는 궤도(trajjectory)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Taylor, 1991b, 186).

이러한 점에서 Taylor는 세계체제(공간적으로는 지구표면 전체)의 구성요소로서의 특정한 지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사회변동 과정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체제 내의 지역을 역사지역(historical regions)이라고 개념화하였다(Taylor, 1988; 1991a; 1991b). 세계체제 속에서의 지역은 창조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존속 및 재생산되며, 그리고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지역이 형성되어 소멸에 이르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중심, 주변, 그리고 반주변지대(zones)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일반 메커니즘의 구체적 결과이다(Taylor, 1988, 262).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대(zones)와 지역(regions)내에서 세계를 가로지르며 기능하는 국가, 정치적 활동, 가구, 사회계급, 기업, 그리고 다른 많은 조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의 동인(agents of change)과 제도, 그리고 사람(individuals)을 통해서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을 창조하고, 재생산하고, 그리고 파괴하여 버리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였다(Taylor, 1988, 262).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역이 상이하게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역내의 정치적(국가, 정치활동 등), 경제적(기업 등), 사회적(사람,

가구, 사회계급 등) 요소 때문이며, 그 가운데 사회적 요소의 하나인 지역사람이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계체제에서의 지역, 즉 역사지역은 이와 같이 세계체제적인 광범한 맥락속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도 자율적이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Taylor, 1988, 263). 바꾸어 말하면, 한 지역의 운명과 기능은 세계체제 내의 다른 지역과 상호관련돼 나타남으로 어떤 지역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Taylor는 이러한 역사지역 개념의 구체적 실례로 Wallerstein이 기술한 바 있는 대(大) Caribbean 지역(Plantation America 지역)을 들고 있다(Taylor, 1988). 북동 브라질에서부터 카리브해를 거쳐서 미국의 메릴랜드에 이르는 대 Caribbean지역은 1600년에서 1750년까지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두번째 주요한 국면인 불황기에 새로운 하나의 주변지대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의 여타 주변지대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그들의 경제를 국내의 지방시장으로 다시 지향하는 등의 위축경제 시기를 맞게 되었으나, 대Caribbean지역은 17세기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반주변지대로 전락하고 북서유럽이 중심지대로 부상하던 때에 맞추어, 현지의 계약된 하인과 노예를 활용해 북서유럽을 위한 사탕수수와 면화 및 담배의 plantation지역으로 본격 개발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변지대로 형성되었다. 서북유럽에 대한 이 지역 농장들의 수익이 합법적인 무역의 시행으로 농장주와 은행가 및 무역상인과의 관계로 보장됨에 따라, 이 지역은 18세기에 다른 어떤 주변지역 보다도 번성하여 주변지대 가운데 중심지역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른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제2성장기인 19세기에는, 유럽에서의 나폴레옹전쟁과 사탕수수의 대체작물인 사탕무의 개발로 인해, 이들 작물에 대한 중심부(유럽)의 수요가 격감하여 대Caribbean지역은 다시 쇠퇴하고, 더욱이 미국독립 등의 영향으로 이 역사지역의 북부가 유럽의 주변지대에서 미국의 주변지대로 전환되어져, 이 지역은 분열되고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내에서는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구체적인 특성을 지닌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세계경제체제의 재생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상이하게 흥망성쇠를 겪게됨으로, 지역은 단순히 지리적 특성에 의해 구분된 하나의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와 함께 만들어지는 역사지역의 개념으로 접근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역분석의 지리적 규모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세계체제의 일반적 메커니즘에 의해 지역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역분류 방법에서처럼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의 지리적 규모를 분류하고 분석할 수는 없다. 세계체제의 일반적 메커니즘은 그것이 작동하는 지구표면의 전체공간 내에서 다양한 지리적 규모의 지역을 형성시키므로, 세계체제론적 지역분석의 대상은 지리적 분석 규모의 차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역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질 뿐 아니라 지역의 구분체계도 달라질 것이다.

세계체제론에서는 지구적 규모에서 세계경제의 일반적 메커니즘(특히 생산의 연계망에 따른 노동의 공간분업)이 중심, 반주변, 주변 등의 과정으로 나타나, 세계는 이러한 3지대로 크게 구분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러한 3지대의 존재는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3유형의 지대는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된 정태적인 지역화(regionalisation)를 의미하지 않는다(Taylor, 1991b, 185). 왜냐하면 이들 3지대 각각 편입된 여러 부분지역은 그들 간의 지역적 차이(Taylor, 1988, 262)로 인해 어떤 지역은 상층(중심)으로 발전·상승하기도 하고, 하층(주변)으로 퇴보·하락하기도 하여서 3지대의 지리적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적 규모에서의 각 지대는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과정 측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등질적인 비연속적 지대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측면(자원기반, 경제적 혼합구성, 정치구조, 기타 등등)에서는 각 지대내에서 중요한 지리적 상이점을 내포하고 있다(Taylor, 1988, 262; Taylor,

1991a, 27). 예를 들면, 같은 주변지대라 하더라도 이에 속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대륙간에는 지리적 상이성이 엄연히 존재하며, 또한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도 몽골과 벵골라데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매우 상이한 지역(국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적 규모에서 세계를 3지대로만 구분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다양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구적 규모에서의 세계체제는 지역분석적으로 볼 때 하향식 사회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전세계는 일련의 다양한 지역규모에 의해 하향적으로 구성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체제론에 의한 지구적 규모에서의 지역구분이 세계의 지역적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체제분석에서의 지역은 하향적으로 구성되어진다는 두가지 점에 근거하여, Taylor는 지역분석을 위해서는 세계체제론의 세계 또는 지구적 규모에서의 3지대 구분의 틀 내에서 지리적 구분의 세분화, 즉 2차 지역화(second-order regionalis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Taylor, 1988; 1991a; 1991b). 그는 세계체제의 3지대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위규모의 지역연구는 세계체제에 의한 세계의 공간적 불균등발전(중심, 반주변, 주변지대)의 형성 또는 발생원인과 그것의 동태적인 지리적 변화 또는 지역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의 지리적 규모를 국제적 규모(국제지역), 국가적 규모(국가지역), 그리고 국가내 규모(국가내의 지역과 지방)로 나누고 있다(Taylor, 1991a, 27).

4)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경험적 연구사례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연구 또는 지역분석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각각의 지리적 규모별 지역의 경험적인 실제 연구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규모의 지역연구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국제적 지리규모 차원의 국제지역(interna-

tional region)개념은 지구적 또는 세계적 규모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세계를 3지대로 구분한 것에 대한 하위 지역개념으로서, 대체로 문화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지역이다(Taylor, 1991a, 27). 바꾸어 말하면, 세계체제에 의해 구분되는 지대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지대(예, 주변지대)라 하더라도 그 지대는 정치적 또는 문화적으로는 다시 상이한 여러 지역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는 바, 이렇게 구분된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을 국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리적 규모의 대표적인 지역연구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주변지대의 국제지역으로서 대Caribbean지역에 관한 연구(Taylor, 1988)와 중심지대의 국제적 지역으로서 유럽(대서양 유럽)에 관한 연구가 있다(Taylor, 1991b). 후자에서 Taylor는 중심지역의 하나인 가장 최근의 유럽, 즉 대서양 유럽(Atlantic Europe)지역의 지역성을 역사지역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유럽은 2차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통제에 따라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각각 분할되고, 유럽의 비공산국가들로 구성된 이른바 대서양 유럽지역은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국의 경제적 지원(Marshall Plan)과 군사적 지원(NATO)에 힘입어 자본주의 자유세계의 경제적 중심(core)지역으로 재건되는데, 1970년경 이후에는 미국이 지원·재건한 또 다른 중심지역인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까지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대서양 유럽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정책의 변경과 더불어 그 나름대로 하나의 새로운 독립적인 유럽(EC)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1989년의 소련공산주의의 몰락에 따른 유럽의 '철의 장막' 소멸로 더 이상 하나의 특정한 지역(국제적 지역)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국가적 규모의 지역연구

다음으로 국가적 규모에서의 지역으로서 국가는 세계체제에서 그것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세계체제론적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지 못해 아직까지 실제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지역과 지구적 규모의 세계경제적 지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되지 않으면 안되는 하위수준의 지역규모로 생각된다.

Taylor는 역사지역의 개념정의에서 비록 정치적 단위(국가)가 지역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교분석의 기반으로 국가를 지역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역구분을 위해서 정치적 경계를 선택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Taylor, 1988, 263). 그 예로서 미국과 캐나다는 같은 중심지역(core)으로서 단일의 앵글로아메리카 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정치적 경계로 분리하지 않는 한 하나의 지역을 이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역구분을 위해서 정치적 경계가 경제적 경계보다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북미지역의 미국과 멕시코는 각각 중심지대와 반주변지대에 속해 하나의 역사지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치적 경계가 경제적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의 국가지역을 결정 또는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Taylor는 세계체제에서의 국가는 영역권 또는 세력권(territoriality)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영역권은 Giddens(1985)가 표현한 바와 같이 정치적인 권력의 그릇(power container)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복지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 그릇으로도 기능한다고 언급하고, 국가의 역할과 발전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Taylor, 1994). 그는 20세기 중반까지 중심부 국가들은 국가에 대한 각각의 그릇의 의미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방어국가, 경제적으로 발전국가, 문화적으로 민족국가(nation-states), 그리고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로 발달하여 왔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국제적인 평화 분위기의 고조와 경제의 세계화 및 문화의 파편화 현상 등의 증대로 국가의 영역권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그릇의 기능에는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권력의 그릇으로서의 국가는 기존의 경계 또는 영토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복지경제의 그릇으로서의 국가는 더 큰 영토로, 그리고 문화의 그릇으로서의 국가는 더 작은 영토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국가는 세계화의 원인보다는 계

속적인 성장정책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로 존립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국가가 지역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Wallerste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특히 반주변 지대의 국가들은 중심과 주변지대 국가들간의 갈등을 조정·감소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개입정도가 크며(이수훈, 1993, 118), 또한 Taylo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최근에 국가의 기능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국가의 영역적 존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세계체제론적 지역연구의 중요한 분석대상지역이 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3) 국가내 규모의 지역연구

마지막으로 국가내 규모에서의 지역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국가내 지리적 규모에서의 보편적인 지역(region)과 그것을 구성하는 지방(localitie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Taylor, 1991b, 185). 한 국가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이한 지리적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19세기에 미국은 세계경제의 3지대 모두를 나타내 북동부 지역은 중심지대, 남부지역은 주변지대, 그리고 서부지역은 반주변지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Taylor, 1988, 263).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비록 중심지대에 속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는 그 특성상 불균등한 공간발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역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가내 지역은 이렇게 나타나는 한 국가의 여러 특정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적 지역의 각각은 다시 여러 지방 또는 국지적 지역으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국내적 지역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community)의 집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Taylor, 1991a, 27). Taylor는 주민의 일상적 행위를 통하여 형성되는 지역사회와 같은 것을 지방(localities)이라고 일컫고, 이는 Paasi(1986)가 그의 지역이론에 언급한 장소(place)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

다(Taylor, 1991b, 185). Taylor가 들고 있는 최소규모 지역인 지방 또는 국지적 지역은 하루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 즉 일상생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내 규모의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Thrift의 런던시와 영국 남동부지역의 연구를 들 수 있다(Thrift, 1990; 손명철 편역, 1994, 271~308). 그는 세계체제(global system)속에서 지역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1984년에서 1987년 사이의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과 같은 이른바 대충격(Big Bang)기간에 일어난 세계금융시장에서의 신국제금융체제(NIFS)의 등장이 영국의 한 지방(locality)인 런던의 금융시장과 지역변화에 어떤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나아가 국내적 지역인 영국의 남동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즉, 신국제금융체제는 런던 증권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져 런던의 증시 및 금융서비스업의 활황과 자본의 집중현상을 불러 일으켜서, 런던의 노동시장은 성장, 국제화, 숙련화, 전문화 및 이동성 증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런던 근로자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런던의 사회계급이 서비스 계급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런던이 공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남동부 지역에는 더욱더 부가 집중돼 여타지역에 비해 고급소비재 구입과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4. 세계화 관점에 의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적실성 평가와 보완

1)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평가

여기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어 가고있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연구방법론으로서의 적실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연구방법으로서 적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특정한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세계화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이 오늘의 세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세계체제론에 기초하는 지역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개념이 동태적이어서 세계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태적 지역개념을 가정하고 있어서 지역의 동태성을 잘 해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의 지역의 개념, 즉 역사지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하고 소멸하는 동태적인 개념이어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세계의 여러 지역간의 경쟁관계와 그에 따른 지역의 동태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 지역연구를 통해서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지역간의 상호의존 증대현상, 즉 세계화 현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지역을 구분·분석하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의 크고 작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해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이와 같은 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지역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적실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세계의 지리적 다양성과 지역적 변동현상을 세계체제(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중심과정, 반주변과정, 주변과정)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커니즘과 결합하여 지역차의 발생과 지역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 있어서 지역 또는 장소의 구체적인 차이 형성과 그것의 변화에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요소 외에 지리적 위치, 자

연, 문화 등의 요소도 크게 작용할 뿐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 방법론은 지역의 다양한 차별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 한 지역의 성격 또는 특성이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분석·설명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이해하는 것을 기본적인 과제이자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세계경제가 만들어낸 역사지역 개념에 의해 지역의 특성 곧 지역성을 분석하고 있어서 자연히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역사적 성격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지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것은 지역구분 방법이 불명확하여 지역의 한계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세계체제적 분석에서는 각 지역의 형태가 세계경제의 일반메커니즘의 단일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형태 구분은 어떤 지역의 특성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의 결합을 확인하고, 그것의 기대되는 결과를 토대로 그 범위를 지도화함으로써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내부지역(inner area)과 적은 부분이 나타나는 외부지역(outer area)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돼, 지역의 경계선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Taylor, 1988, 263~264). 그렇기 때문에 지역분류에서 어떤 장소 또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공유할 경우에는 지역의 중복성, 즉 중복지역을 인정하고 있다(Taylor, 1988, 264). 예를 들면, Taylor의 대Caribbean지역연구에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에 이르는 지역은 대Caribbean 지역과 미국지역 둘다에서 기능하는 중복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을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내는 지리적 범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정치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경계선이 불명확하고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중복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무한 경쟁적인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경제적 경계에 의한 지역구분과 그런 지역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역인 국가단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계화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국가간의 증대되는 교류와 상호의존적 경쟁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역연구에 불리한 방법론이 되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

여기서는 이상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평가에 기초하여 그것이 세계화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구조는 더 이상 지역적 생산 특화나 지역경제를 따라 조직돼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수직적 통합에 따라 조직돼 있다. 때문에 하나의 세계경제 체계의 개념에 의해 세계의 지역공간구조와 지역차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현실세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연구도 현실적인 설명력이 높을수록 더 좋다는 명제에서 볼 때,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지리적 규모에서 지역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 각 지역의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부구조에서 전개되는 특히 생산과정의 메커니즘에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이외도 지역의 지리적 위치, 자연적 조건, 문화적 특성 등의 요소도 함께 작용하여 세계를 중심, 반주변, 주변 등의 상이한 지역으로 형성시키고, 변화시킨다고 생각된다.

지리적 위치가 지역을 형성시키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영향을 준 일례로는 한

세계화시대에 적절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국의 주변지대로의 편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일제시대 이전에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돼 있지 않았으나, 일제시대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주변지대로 본격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당시에 주변지대로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적 요소가 있겠으나, 일본과 지리적 위치가 인접해 있는 것도 당시에 세계경제의 반주변지대에 속하고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었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쉽게 일본 경제에 종속돼 세계경제의 주변지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형, 기후, 토양, 각종 천연자원 등과 같은 자연적 조건의 지역적 상이성도 세계의 지역차를 낳는 일반 메커니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대Caribbean지역이 17세기부터 사탕수수와 면화 및 담배의 plantation지역으로 개발돼 세계경제의 주변지대로 편입된 것은 이 지역이 그러한 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자연(특히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공업지역이 지하자원의 주요한 매장지 또는 생산지의 분포에 따라 발달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60년대 이후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신흥공업국가와 일본의 경제적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유교문화적인 특성이 그러한 발전의 한 원인적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견해(김일곤, 1985)라든지, 세계의 각 지역에서 지역민의 전통적인 식생활문화가 각 지역의 농업경제와 식품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지역차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이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 자연, 문화적 요소와도 상호 결합하여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을 형성시키거나 변모시키는데 있어 그러한 요소들이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성격 또는 특성분석에서는 경제적 인 것 외에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것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지역성 규명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세계경제체제의 일반 메커니즘은 지역의 경제적 성격 또는 특성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여러 측면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의 성격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세계경제체제에 의해 형성된 지역은 그 지역이 세계경제에 어떻게 편입돼 있고,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그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특성도 변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은 일제시대에 경제적으로는 일제에 의해 세계경제의 주변지대로 편입돼 일본의 식량 및 자원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지만, 공간적으로는 그러한 자원의 개발과 수송에 유리한 장소로 교통망이 개설돼 항구도시와 주요한 육상교통(특히 철도)의 결절점에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그에 따라 인구이동이 활발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현상이 나타났으며, 문화적으로는 일본문화가 우리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종속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중심과제로 등장하는 등으로 한국지역의 제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1960, 70년대에 세계경제에서 저임금에 의한 경공업제품 생산의 중심지역으로서 반주변지대의 역할을 할 때에는 한국의 공간,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성격은 또 다른 형태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지역성 규명에서도 지역의 경제적 특성 이외에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특성도 함께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구분 방법에서는 경제적 경제와 더불어 정치적 경제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이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메커니즘

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 경계에 의해 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경계가 불명확하고, 또한 중복 지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모든 지표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지역구분을 하되, 그 경계선(경제적 경계)이 정치적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의 정치적 경계선(국가의 경계와 국가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을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정치활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한 국가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역경제 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로는 비슷한 시기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한 한국과 대만이 각각 상이한 정치와 그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상이한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로 발전된 사례와 최근에 러시아 및 동구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들 지역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분의 객관화와 체계적 지역연구를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경제적 경계선과 더불어 국제적 및 국가내의 정치적 경계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국가도 지역연구의 중요한 대상지역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국가간의 경제적 의존관계는 더욱 증대되는 한편에 국가간의 경쟁관계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경제적 경계에 의한 지역구분을 증시한 나머지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지역은 지역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체제론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이익추구를 위해 힘을 사용하는 집단의 기구로 보고 있으며(Taylor, 1989, 164; 이재하, 1993, 365), 또한 영역권적으로 힘 또는 권력의 그릇으로서의 국가는 기존의 경계 또는 영역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Taylor, 1994, 158~159).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국가는 앞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단위로 유지될 뿐 아니라, WTO체제로 인해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체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도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이 국가 또는 세계의 정치적 경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지역에 대한 연구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이상에서 지리학적 지역연구방법론 가운데 세계화 관점에서 지역을 설명하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지적 수준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른바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기존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 간과하거나 경시한 것을 현실세계(세계화시대)에 더욱 알맞도록 보완한 것으로서, 첫째, 세계체제내의 지역(역사지역)은 그것을 낳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재생산적인 일반 메커니즘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이외에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보고 지역의 설명에 그러한 요소들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세계경제체제는 지역의 종합적 성격을 변모시키므로 지역성을 규명함에 있어 지역의 경제적 특성 이외에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것도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이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셋째, 지역분석을 위한 지역구분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적 경계와 함께 정치적 경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단위 지역도 중요한 연구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가지 시대적 변화의 물결속에 동시에 살고 있다. 이러한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연구방법론은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가장 요구되는 국가지역연구에서 뿐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지방단위지역의 연구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비록 국경없는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고는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

으로 국가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 간의 상호존재적인 경쟁관계는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서 우리가 세계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시장 즉, 세계 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치와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세계경제적 맥락에서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여 해외지역(국가)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는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고장의 발전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과 미래의 개발방향을 위해 시·군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각 자치단체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역연구를 거쳐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바람직한 계획이 될 것이다. 수정된 지역연구방법론은, 기존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도 지방(locality)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구분에서 정치적 경계를 도입하고 있어 지방정치적 경계에 의해 나타나는 자치단체지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연구를 가능토록 한다. 더욱이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에 의해 국가경계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각국의 지방간에 상호교류와 의존이 증대되고 강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이른바 세계적 지방화(glocalization)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적 지방화에 대응하여 각 지방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연구에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의 각 국가 및 지방의 지역연구에 대한 시대적인 높은 필요성에서 비추어 볼 때, 지역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지리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도 지역연구에 유리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지리학계는 세계지리학계의 지역지리에 대한 부활

의 조류에 부응하여 앞에서 언급한 지역의 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연구를 활성화함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에서 지리학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文 獻

- 강학순·박찬석, 1992,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이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문화경관 해석, **지리학**, 27(2), 129~147.
- 강현수, 1991, 공간적 분업과 지역불균등발전, **공간과 사회**, i, 도서출판 풀빛, 서울, 104~139.
- 김경동, 1994, 국제화와 지방화 : 개념적 고찰,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남남출판, 서울, 57~78.
- 김덕현, 1993, 매시의 노동의 공간분화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341~357.
- 김용창, 1991, 정치경제학적 공간연구의 발전과 분화, **공간환경**, 31, 7~51.
- 김일곤, 1985, **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 김종규, 1993, 라우텐자흐의 지지 및 형태변이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33~52.
- 류제현,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의 발달, **지리학논총**, 14, 345~358.
- 박길성, 1994, 한국사회의 국제화과정과 성격,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남남출판, 서울, 79~106.
- 박배균, 1991, 리얼리즘, **공간환경**, 31, 69~84.
- 배순근 역, 1986, **역사적 체계로서의 자본주의**, 남남, 서울.
- 변창흠, 1991, 노동의 공간적 분업, **공간환경**, 31, 149~156.
- 손명철, 1993, 하트슨의 지역차이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84~103.
- 손명철, 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경기도 이천 지방노동시장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서울.
- 이상일, 1991, **실제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지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이상헌, 1991, 공간연구방법론으로서의 구조화이론-Anthony Giddens를 중심으로, **공간환경**, 31, 52~68.
- 이수훈, 1993, **세계체제론**, 나남, 서울.
- 이재하, 1985, 대학생의 일상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죽파 홍순완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대구, 399~422.
- 이재하, 1993, 테일러의 세계체제론적 지리학,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358~372.
- 이정만, 1993, 사우어의 문화경관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71~83.
- 이혜주, 1995, **세계체제론적 관점에 따른 지역연구 : 구미지역을 사례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서울.
- 정진영 편역, 1985, **세계체제론**, 나남, 서울.
- 조명래, 1994, 지구화의 의미와 본질, **공간과 사회**, 4, 한울, 서울, 32~78.
- Ackerman, E.A., 1963, Where is a research frontier?, **Annals of A.A.G.**, 53(4), 429~440.
- Archer, K., 1993, Regions as social organisms : the Lamarckian characteristics of Vidal de la Blache's regional geography, **Annals of A.A.G.**, 83(3), 498~514.
- Berry, B.J.L., 1964, Approaches to regional analysis: a synthesis, **Annals of A.A.G.**, 54(1), 2~11.
- Bradshaw, M. J., 1990, New regional geography, foreign-area studies and Perestroika, **Area**, 22(4), 315~322.
- Dicken, Peter, 1992, **Global Shift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Elkins, T.H., 1989, Human and regional geography in the German-speaking lands in the first forty years of the twentieth century, in J.N. Entrikin and S.D. Brunn (eds.), **Reflections on Richard Hartshorne's The Nature of Geography**, AAG, Washington, D.C., 17~34.
- Featherstone, M. (ed.), 1990, **Global Culture**, Sage Publications, London.
-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Hutchinson, London.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 A Critical Survey of Current Thought in the Light of the Past**, AAG, Lancaster.
- Hauer, J., 1990, What about regional geography after structuration theory?,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85~102.
- Hoekveld, G.A., 1990, Regional geography must adjust to new realities,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11~31.
- Janelle, D.G., 1991, Global interdependence and its consequences, in S.D. Brunn and T.R. Leinbach (eds.), **Collapsing Space and Time**, Harper Collins Academic, London, 49~81.
- Johnston, R.J., Hauer, J. and Hoekveld, G.A., 1990, Region, place and locale : an introduction to different conceptions of regional geography,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1~10.
- Martin, G.J. and James, P.E., 1993, **All**

- Possible Worlds :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Thir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Massey, D., 1979,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3(2), 233~243.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 Social Structures and Geography of Production*, Macmillan, London.
- Nir, D., 1990, *Region as a Socio-environmental System : An Introduction to a Systemic Regional Geography*,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Schaefer, F.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A.A.G.*, 43, 226~249.
- Taylor, P.J., 1981, Geographical scales within the world-economy approach, *Review*, 1, 3~11.
- Taylor, P.J., 1988, World-systems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3), 259~265.
- Taylor, P.J., 1989, *Political Geography : World-Economy, Nation-State and Locality*, Harlow, Longman, UK.
- Taylor, P.J., 1991a, A future for geography, *TERRA*, 103(1), 21~31.
- Taylor, P.J., 1991b, A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 the case of Euro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 Society and Space*, 9(2), 183~195.
- Taylor, P.J., 1994, The state as container : territoriality in the modern world-syste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2), 151~162.
- Terlouw, C.P., 1990, Regions of the world system: between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50~66.
- Thrift, N. J., 1990, Doing regional geography in a global system :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City of London, and the South East of England, 1984-7,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180~207.
- Thrift, N. J., 1990,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2), 272~279.
- Thrift, N. J., 1991,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4), 456~465.
- Thrift, N. J., 1993,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1), 92~100.
-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Academic Press, New York.
-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allerstein, I.,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I*, Academic Press, New York.
- Wallerstein, I., 1988, *The Modern World-System III*, Academic Press, New York.
- Whittlesey, D., 1954, The regional concept and the regional method, in P.E. James & C.F. Jones (eds.), *American Geography : Inventory and Prospects*, Syracuse University Press, Syracuse, 21~68.

Developing a New Area Study Methodology Suitable to the Globalization Era : With Revision of the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

Jaeha Lee*

Summary

We now live in the new era of globalization which implies the functional integration or increase of inter-dependency between internationally dispersed economic activities. As globalization impacts our various activities and daily lives, social sciences, including geography, attempt to approach social phenomena from a global perspective. From this point of view, new regional geography, which has been articulated in recent social theory since the 1980s, also must adjust to these new world realities.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a suitable methodology or approach to area study or regional geograph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o suggest the field of area study that Korean geographers should be concerned with in the futur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existing various methodologies of regional geography such as the ecological approach, the landscape approach, the areal differentiation approach, the system approach, the structuration theory, the spatial division of labour, and the world-system, which have devised in the traditional and new regional geography. Peter Taylor's regional geography of world systems among them has an

appropriate rationale of area study in the globalization era, because world-systems theory explains well globalization. However the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 must be revised to become more suitable to the area-study approach in the globalization era.

Firstly, the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 explains that regions(historical regions) are made by general mechanisms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that operate through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gents within regions such as individuals, households, social classes, economic enterprises, states, political movements, and many other organizations. But these mechanisms can also act through other regional agents of geographical location, natural condition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generating process of regions needs to be explained by locational, natural, and cultural elements in addition to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elements within regions.

Secondly, Taylor's world-systems approach does not express composite characteristics of regions, because it focuses o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r position of regions within the world-economy. Region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ed into world-economy systems are not only changed economically, but also changed spatially, socially, culturally, and politically. Hence the world-systems approach must try to analyze these composite characteristics and their change of regions.

Thirdly, The world-system approach proposed that the geography of regions within world-systems could be divided and analyzed as three regional types at the geographical scale such as international regions, state regions, and intra-state regions. However such a regionalization is usually not indentified distinctly, because the geographical range of regions in world-systems shaped by economic boundaries of the general mechanisms of the world-economy is fluid and also occasionally overlaps with other political regions. Hence I propose that the world-

systems approach should choose political boundaries of states and local autonomies in addition to economic boundaries for objective regionalization and systematic areal study.

The revised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 that I have suggested in this paper can be more effectively and properly applied to regional geography or area study in the globalization era. Globalization intensifies competition between states and also between local autonomies in the world. Therefore we must make efforts to study such areas or regions through the revised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

Key words : globalization, methodology of area study, Taylor's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 historical regions, revised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